통도사 불교대학 '1500명 입학'…전법 새 지평

매년 신입생 4년 연속 성장해
대학원 829명 수강 만족 입증
스마트 인프라 전법 한계 극복
기도비 전액 환원 선순환 실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 불교대학이 3월 7일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한 '2026학년도 불교대학 및 대학원 입학식'에 1500여 명의 신입생과 재학생이 운집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 불교대학이 종교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 성과를 일궈 냈다. 3월 7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2026학년도 불교대학 및 대학원 입학식'은 1500여 명의 신입생과 재학생이 운집한 가운데 전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 통도사 불교대학(원) 입학생 및 수강생은 불교대학 1학년 421명, 2학년 250명, 대학원 829명으로 총 1500명을 기록했다. 2023년 1004명으로 '1000명 시대'를 연 이후 4년 연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 낸 포교의 결과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대학원 과정의 성장이다. 전체 인원의 절반이 넘는 829명이 대학원에 진학해 불교대학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고 대거 심화 과정으로 유입됐다. '연속 수강' 현상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의 학습 만족도가 재등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날 주지 현덕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불교 공부의 본질적 가치와 성찰을 강조하며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스님은 "영축총림 적멸도량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이 인연은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성찰의 시간"이라며 "부처님의 법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득되어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심은 깨달음의 씨앗이 수행의 이정표가 되어 스스로를 맑히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으로 회향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교국장 신경 스님은 '교육·기도·혁신'이라는 3대 포교 기치를 제시하며 운영 비전을 확장해 설명했다. 신경 스님은 "통도사 불교대학은 전통의 깊이를 지키되 현대적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법 도량이 될 것"이라며 "실천하는 불교를 지향하며, 여러분이 내는 소중한 기도비 전액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계층 포교 기금으로 투명하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통도사만의 차별화된 '스마트 전법'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통도사 강의실 대형 공간이 가진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사의 동선을 실시간 추적하는 AI 카메라와 85인치 고해상도 모니터 등 대대적인 인프라를 갖췄다. 시설 투자로 강의 집중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도 선행됐다.

QR코드 기반의 디지털 출결 시스템과 아크릴 디지털 명찰 도입은 수강생들에게 전문 교육기관에 속해 있다는 신뢰를 심어 주었으며, 명찰 소지자에 대한 사찰 출입 편의 제공 등 세밀한 배려는 수강생들에게 출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

통도사는 향후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및 VOD 서비스를 안착시켜 지리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스마트 전법망'으로 교육 체계를 진화시킬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불자회, 김현길 12대 회장 취임

3월 11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제11 · 12대 회장 이 · 취임 법회


김현길 제12대 부산경찰청불자회 회장이 임명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불자회가 제11·12대 회장 이·취임 법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부산경찰청불자회는 3월 11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회장 이·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김현길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12대 집행부의 본격적인 행보를 알렸다.

이날 법회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과 사무국장 석산 스님, 범어사 교무국장 효천 스님, 사상경찰서 경승실장 성문 스님 비롯해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명장을 전달받은 제12대 회장 김현길 회장은 포교와 복지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강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말못 할 고충을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많다"며 "불자회가 회원들에게 작은 위안과 쉼이 되는 공간이 되도록 명상과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자비와 봉사의 정신이 조직 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전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스님은 "해인사 주련에 적힌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라는 구절처럼, 극락이나 깨달음의 세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그 치안의 현장이 곧 깨달음의 도량"이라며 "시민의 곁에서 자비의 화신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1998년 창립된 부산경찰청 불자회는 현재 1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신행 단체다. 매월 정기 법회와 명상 수행은 물론, 지역 사회를 위한 자비의 쌀 나눔과 부산연등축제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승원 스님, 남해불교사암聯 회장 취임

3월 5일, 법흥사서 이 · 취임식
남해불교연합신도회 창립도



승원 스님(용문사 주지·사진)이 남해불교사암연합회장에 취임했다.

남해불교사암연합회는 3월 5일 쌍계사 남해포교당 법흥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과 남해불교연합신도회 창립 및 신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1부 남해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2부 남해불교연합신도회 창립법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승원 스님은 취임사에서 화합과 포교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승원 스님은 "오늘 우리는 남해 불교의 새로운 원력을 세우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선대 스님들께서 다져 놓은 화합의 토대 위에서 남해 불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와 신도회가 협력해 포교와 신행을 활성화하고 젊은 세대와 미래 불자를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남해 불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승민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남해군 불자들과 사찰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남해불교연합신도회 창립 준비를 진행했으며, 현재 보리암·용문사·화방사·법흥사·망운사·운대암·관음선원·낙가사·학림사·염불암·금왕사 등 11개 사찰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남해불교연합신도회 초대 회장에 취임한 하청두 회장은 "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지역 불교의 공익 활동과 각 사찰의 문화행사에도 동참해 화합과 친목을 넓혀 나가겠다"며 "임원진과 함께 남해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생명나눔·부산은행·국제신문, 공감기부 프로젝트

2015년부터 난치병 환우 지원
치료비 1억 4000만원 전달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는 3월 5일 국제신문 7층 사장실에서 부산은행, 국제신문과 함께 '공감기부 프로젝트 경과보고 모임'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부장 심산 스님과 이승표 부본부장, 운영이사 현담 스님, 박동범 사무국장을 비롯해 위성옥 부산은행 사회공헌 홍보부장, 이현철 사회공헌팀장, 황문성 국제신문 발행인, 오상준 편집인 겸 총괄본부장, 최현진 편집국장, 임훈 독자여론팀장 등이 참석해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협력기관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공감기부 프로젝트'는 지역민 복지 향상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국제신문, 부산은행,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5년 업무협약 이후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제신문이 매월 난치병 환우 사연을 소개하고, 부산은행이 홈페이지 댓글 참여를 기반으로 기부금을 지원하며,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치료비 지원 대상 환우를 발굴해 병원에 치료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5년간 약 1억 4000만원의 치료비가 난치병 환우 지원에 사용됐다.

심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과거에는 종교 간 벽이 높았지만 지금은 종교를 넘어 공감되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대가 됐다"며 "종교의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지혜가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금정불교대학, 2026학년도 입학식

3월 8일…신입생 660명



범어사금정불교대학(학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이 3월 8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열고 새 학기 출발을 알렸다.〈사진〉

이날 입학식에서는 학장 정오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해 금정불교대학에는 전문과정, 경전과정, 전통문화과정 신입생 660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학장 정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진리를 찾는 길이며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의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며 "금정불교대학에서 경전 공부와 수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마음의 안식처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입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과 실천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마가 스님, 8주 선명상 프로그램 개강

명상 지도 · 경전 공부 등



선명상을 바탕으로 한 8주 명상 프로그램 '내 인생을 꽃피우자'가 첫 수업을 시작하며 참가자들의 마음 성찰과 수행의 여정을 열었다.

마가 스님은 3월 5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교육장에서 성인 대상 명상 프로그램 '내 인생을 꽃피우자' 첫 회기를 진행했다.〈사진〉 프로그램은 주 1회, 회당 2시간씩 총 8주 과정으로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마가 스님을 비롯해 해피 스님과 천도 스님이 강사로 참여해 명상 지도와 경전 공부, 참여형 활동을 진행한다.

첫 강연을 맡은 마가 스님은 명상을 '자신을 비춰 보는 거울'에 비유하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스님은 "명상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 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조계종 창종 30주년 기념 법회

대봉 스님 "희망의 등불 돼야"



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대봉 스님)은 3월 8일 문경 유스호스텔 성보천 대연회장에서 창종 3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사진〉

종정대행 겸 총무원장 대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난 30년은 종도들의 원력과 정성이 모여 이룬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해 중생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원장 진묘 스님과 문화원장 보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수행과 포교, 문화 활동을 통해 종단이 걸어온 노력과 의미를 되새겼으며, 봉행위원장 혜덕 스님은 봉행사에서 창종 30주년을 맞은 환희심을 전하고 종도들의 화합을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우곡사,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2월 26일, 의창구청서 전달식



창원 우곡사(주지 석산 스님)는 2월 26일 의창구청에 이웃 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사진〉

성금은 우곡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한 것으로 '의창구 희망플러스 계좌'를 통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주지 석산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나눔에 있다"며 "수행은 법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찰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희 우곡사 신도회장은 "신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관암, '제10회 차시락의 밤' 연다

3월 21일, 경내 특설무대서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 스님)은 3월 21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10회 차시락(茶詩樂)의 밤'을 개최한다.

'차시락의 밤'은 차(茶)와 시(詩), 음악(樂)이 어우러지는 산사 문화 행사로, 정관암이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해 온 행사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산사의 봄 정취 속에서 시 낭송과 음악 연주 등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음악인을 격려하기 위한 '제10회 울산연주인상' 시상식도 열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